

박우현의 유배일기 <茲山錄>의 서술상 특징 연구

조수미*

<차례>

1. 서론
2. <자산록>의 서술상 특징
 - 1) 기록의 빈도 및 분량과 유배 정황의 상관성
 - 2) 서두와 결미를 갖춘 구조의 완결성
 - 3) 묘사 및 인용의 적절한 활용
3. 결론

<국문초록>

<자산록(茲山錄)>은 조선 말기 문신인 박우현(朴遇賢, 1829~1907)이 12년간 흑산도에 유배되었던 일을 기록한 유배일기이다. 유고문집인 『금파유집(錦坡遺集)』에 실려 전한다. <자산록>은 다양한 가치를 지닌 흥미로운 자료인데, 본고는 특히 <자산록>의 서술상 특징을 탐색한 것이다.

<자산록>의 서술상 특징으로는 우선 기록의 빈도와 분량이 유배의 정황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서두와 결미 부분이 기능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는 텍스트의 모양새를 갖추었고, 마지막으로는 적절한 묘사를 통해 정서를 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인용을 통해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산록>의 이와 같은 서술상 특징은 유배일기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측면으로 다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유배일기로서의 보편성이란 ‘유배’라는 한편으로는 독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형성을 띠다고 할 수 있는 경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이라 할 수 있고, 개별성이란 일기가 그것을 기록한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엄연한 문학적 기록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강사

‘기록의 빈도 및 분량과 유배 정황의 상관성’이 전자인 보편성에 해당하고, ‘서두와 결미’, ‘묘사와 인용의 활용’이 후자인 개별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박우현, 유배일기, 『자산록』, 서술상 특성

1. 서론

〈자산록(茲山錄)〉은 조선 말기 문신인 박우현(朴遇賢, 1829~1907)이 12년간 흑산도(우이도)에 유배되었던 일을 기록한 유배일기이다. 유고문집인 『금파유집(錦坡遺集)』의 2권 1책 가운데 1권에 실려 있다.¹⁾ 이 문집은 1957년에 편집, 간행되어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등 비교적 여러 곳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²⁾

〈자산록〉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다. 우선 의금부에서의 국문(鞫問) 과정 및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조선 시대의 형벌사를 살피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도 많은데 특히 흑산도의 위치적 특성상 외인선(外人船)의 출몰과 표류에 대한 기록들이 자주 보인다. 유배지 첩과 서녀, 서자 및 유배지 첩의 친정 가족들에 대한 언급들도 보이는데 비록 그 분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배객의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흑산도의 자연, 풍속 등과 당시의 기근, 전염병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흥미로운 자료인데도 〈자산록〉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다. 2016년에 이르러서야 번역³⁾ 및 해제작업이 완료되었고, 이후의

1)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嶺南文集解題』, 영남대 출판부, 1988, 157~158쪽.

2) 박우현, 김형만 역주, 『錦坡遺集 茲山錄』, 신안문화사, 2016, 14~15쪽.

3) 박우현(2016), 위의 책.

연구는 번역서의 해제작업에 참여한 최성환에 의한 것⁴⁾이 전부이다.

조선 시대 개인 일기 자료의 목록 정리 사업은 2007년 황위주에 의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앞선 연구 성과들에 더하여 인터넷 보급을 통한 신속한 기록유산 DB화를 토대로 가능한 것이었다.⁵⁾ 이러한 종합적 목록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일기연구는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조선 시대의 개인 일기는 기존의 사료에서 결락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자료⁶⁾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만큼 주로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 일기가 가진 사료적, 자료적 가치를 넘어서 문체적 특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⁷⁾ 일기도 엄연히 기록자인 한 개인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구현하는 다양한 문체적 기법들이 결합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기를 하나의 문학적 구조물로서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피는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본고가 유배일기 <자산록>의 서술상 특징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러한 연구사적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산록>은 유배일기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된 특성과 박우현 개인의 문필적 개성이 함께 발휘된 기록물이다. 그 특성과 개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박우현이 유배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⁸⁾ 1873년 고종 10년에 승지로 있

4) 최성환, 「茲山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2017, 87~131쪽. 이 연구는 <자산록>을 통해 당시 흑산도 유배인의 추이와 유배 생활, 우이도의 사회상 등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5)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 가치」,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339~340쪽.

6) 심경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동아한학연구』 14,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20, 446쪽.

7) 심경호(2020), 위의 논문, 450쪽.

8) 이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과 권상규(權相圭)의 <茲山錄序>, 김홍락(金鴻洛)의

있던 최익현이 상소문을 올렸는데 대원군이 국정을 장악하여 실정(失政)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이를 두고 조정의 관료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논박하느라 소란한 와중에 박우현은 효가 백행의 근원이며 만화(萬化)의 근본임을 내세워 최익현의 상소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최익현이 고종과 대원군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하면서 고종에게 효제(孝悌)의 도를 다할 것을 간언하는 내용이었다. 상소를 올린 날 저녁 바로 신지도에 유배하라는 명이 떨어졌으나 5~6일을 옥에 갇혀 국문을 당한 뒤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심지어 3배 빠른 속도로 유배지로 가리는 삼배도(三倍道) 명을 함께 받았다.

유배기간은 짧지 않았다. 1873년에 유배되어 약 10여 년이 지난 1882년에 해배되었으나, 집에 막 도착하자마자 다시 흑산도로 돌아가라는 어처구니없는 환배(還配)명을 받았다. 이로부터 약 2년 뒤 다시 완전히 해배되었지만, 동일한 장소에 유배되었다가 해배되고, 곧 다시 유배되는 이런 일은 흔치 않다. 박우현의 해배와 환배는 흥선대원군의 집권과 실각이 숨 가쁘게 이어졌던 조선 말기의 정치적 상황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자산록〉은 박우현의 우여곡절 많았던 유배와 해배, 환배와 해배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유배일기이다. 본고는 〈자산록〉의 다양한 텍스트로서의 가치 가운데 특히 문학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탐색하기 위해 서술상 특징을 살핀 것이다.

〈行狀〉 등에 자세하다. 〈자산록서〉와 〈행장〉은 『금파유집』에 있다.

2. <자산록>의 서술상 특징

1) 기록의 빈도 및 분량과 유배 정황의 상관성

(1) 기록 빈도와 유배 정황의 상관성

일기는 매일을 단위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띄엄띄엄 기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산록>도 매일 기록한 경우, 1달에 1~2회 기록한 경우, 1년에 3~4회 기록한 경우, 그보다 더 희박한 빈도로 기록한 경우가 섞여 있다. <자산록> 전체 내용을 기록 시기와 기록 빈도에 따라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기록 시기와 기록의 빈도수>

기록 시기(주요내용) \ 기록 빈도	매일	1~2회/달	3~4회/연	1회/연
1869~1872(出仕 이력)				①
1873(최익현 상소 당시 출사 이력)			②	
1873.10월(최익현 상소 관련 政勢)		③		
1873.12월~1874.1월(상소문 작성, 의금부에서의 국문, 유배 노정)	④			
1874.2월~1882.7월(유배지 생활)		⑤		
1882.8월~10월(해배 노정, 환배 노정)	⑥			
1882년 11월 ~12월(환배 생활)		⑦		
1883년~1884년 11월(환배 생활)			⑧	
1884년 12월(해배노정)	⑨			

매일을 단위로 기록한 시기(④,⑥,⑨)의 주요 사건은 '상소문 작성, 의금부에서의 국문, 유배 및 해배노정'이다.

특히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을 때는 위관(委官)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문답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유배형이 확정되기 전에 일어난 의금부에서의 일들에 대해 <자산록>만큼 상

세히 기록한 유배일기는 드물다. 매일 위관으로부터 어떤 국문을 당했는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등과 공초 작성 절차, 형장을 맞을 때의 상황 등 의금부에서의 형 집행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하다. 박우현 자신의 유배에 대한 일종의 해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일의 국문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것은 결과적으로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배와 해배 노정은 대부분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경유하는 지역명, 찾아오는 사람과 도움을 받은 내용, 이동 거리 등이 대부분이다. 그는 안타깝게도 10여 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해배되어 고향에 돌아온 뒤 채 보름이 되지 않아 다시 환배명을 받아 흑산도로 내려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산록>에는 2번의 유배길과 2번의 해배길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다.

유배나 해배 노정은 『의금부노정기』에 정해진 바를 따라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 집행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원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수의 유배일기 가운데는 유배 노정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고, 반면 유배 노정까지만 상세히 기록한 뒤 유배지 도착과 함께 일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조익의 <공산일기>에는 유배 원인과 유배지 도착까지가 아주 짧게 서술되어 있고, 김려의 <감담일기>는 유배지 도착 직전까지는 매우 상세한데 유배지 도착 이후 곧 기록이 마무리된다. 윤양래의 <북천일기>는 유배지에 도착한 후 위리(圍籬)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송상기의 <남천록>은 유배지 확정 후 유배지에 도착하기까지의 경유지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윤창후의 <수주적록>은 일기 앞에 노정기를 따로 두어 유배 노정 가운데 이동 거리 및 경유 지역명 등만 간략히 기록하였고, 일기에서 다시 유배 노정과 더불어 더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유배 노정을 기록한 양상은 작품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인다. 다만, 분량은 차이를 보일지라도 매일을 단위로 기록하였다는 점에

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즉, 일단 유배 노정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미 건조하게라도 경유 지역과 이동 거리 등을 매일 매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산록>도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⁹⁾

1달에 1~2회 정도의 빈도로 기록(③,⑤,⑦)된 것이 <자산록> 전체 분량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1874년 4월~1882년 6월까지가 이에 해당하는데, 최익현의 상소와 관련된 당시 정치적 상황을 서술한 전반부의 기록(③)을 제외하면, 이 시기는 주로 본격적으로 유배지 생활을 하던 때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의 일은 대부분 1달에 1~2회의 빈도로 기록한 것이다. 아마도 유배지 생활이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었을 것이므로 기록의 빈도수가 유배나 해배길에 비해 줄어든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1년에 3~4회 정도의 빈도로 기록된 시기(②,⑧)는 최익현의 상소와 관련된 즈음에 박우현 자신이 조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등을 서술한 부분과 1882년 11월~1884년 11월의 환배 생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1883년과 1884년 두 해 동안에 해당한다.

그런데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매달 2~3회 빈도로 기록하다가 연 3~4회의 빈도로 기록의 빈도가 변화한 시기와 이유이다. 처음 유배 생활을 할 때는 1달에 1~2회의 빈도로 기록을 하였는데, 해배되었다가 다시 환배되어 유배 생활을 할 때는 1년에 3~4회로 기록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환배 이후 해배에 대한 희망이 꺾였거나 다시 유배되었다는 충격 등으로 인해 기록의 의지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해배의 기쁨이 다시 물거품이 되었을 때 기록의 빈도가 줄어든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즉, 기록의 빈도가 변한 것은 유배 상황의

9) 참고한 자료는 언급한 작품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다. 조동길, 『可畦 趙翊 先生의 公山日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김려,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박을수, 『晦窩 尹陽來研究』, 아세아문화사, 2003; 송상기, 한국고전번역원·충남대한자문화연구소 역, 『玉吾齋集(4)』, 문진, 2013; 윤창후, 김남기 역, 『譯註 愁州謫錄』, 남원윤씨참관송우자등과과종중, 2013.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요컨대, <자산록>은 매일 기록을 남긴 시기도 있고 매우 드문드문 기록을 남긴 시기도 있는데 얼핏 이러한 현상이 불규칙적이고 온전히 자의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매우 자연스럽게 이해 가능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국문 현장에서의 위관과의 문답과 유배 노정에 대한 기록은 매일을 단위로 빈번히 기록한 것, 해배되었다가 다시 환배되었을 때 기록의 빈도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유배의 정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매우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이렇듯 유배의 구체적 정황은 기록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결정하거나 기록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서술 분량과 유배 정황의 상관성

일기가 매일의 기록에 있어 그 분량이 일정치 않은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어느 날은 단 한 줄의 기록으로 마치기도 하고, 어느 날의 일기는 상세한 묘사와 설명 등을 덧붙여 길게 서술하기도 한다. 박우현은 대체로 일기를 길게 서술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종종 장황한 서술을 하는 날들이 있다. 비교적 서술이 상세한 것은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한 내용, 가족 및 친지들과의 상봉의 순간과 이별의 순간, 최익현과의 교류’ 등이다.

의금부에서 국문을 당할 때 위관과 나눈 문답의 내용을 기록한 부분은 그 빈도수에 있어서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서술의 분량도 상당하다. 박우현이 그의 상소문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 제기하는 위관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결백과 소신을 밝히는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 이는 매우 절실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당시 조정의 분위기는 최익현의 상소와 그에 대한 반발, 재반발이 곧바로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당장은 본인과 가족에게 화가 미칠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도 짐을 남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가족 상봉의 순간과 이별의 순간에도 서술이 풍부하다. 특히 험한 바닷길을 넘어 가족들이 유배지로 찾아와 극적인 상봉을 하는 순간을 박우현은 매우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났을 때의 감격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유배지로 떠날 때 가족, 친지들과 이별하는 장면과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떠날 때 유배지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과 헤어지는 장면의 서술도 비교적 풍부하다. 특히 박우현은 유배지에서 첩을 두고 서녀와 서자를 얻었는데, 처음 해배되어 이들과 헤어질 때의 안타까운 이별의 장면, 환배되어 돌아왔을 때의 어색하고도 놀라운 재회의 장면, 다시 해배되어 돌아갈 때 본가에서 내려온 아들 호구가 서녀인 주교를 업고 험한 눈길을 걸어가는 장면 등 유배지 가족과 관련된 기록들이 눈에 띈다. 같은 처지의 유배객들 가운데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나눈 친구들이 해배되어 돌아갈 때, 그리고 자신이 그들과 작별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의 서술도 비교적 자세하다.

유배는 오랫동안 가족, 친지들과의 이별의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들과의 이별, 재회, 극적인 상봉 등의 순간에 유배객의 감정이 가장 고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따라 서술이 장황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상적인 부분은 최익현과의 교류를 상세히 서술한 것이다. 박우현은 애초에 최익현이 고종에게 올린 상소를 문제 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되었다. 그런데 최익현이 흑산도에 유배되어 내려온 이후에는 두 사람이 제법 가까이 교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익현이 흑산도로 유배되어 내려온 이유는 척사상소(斥邪上疏)를 올린 것 때문이었는데, 유배지에 도착한 최익현이 그를 찾아오자 척사상소 올린 일을 칭찬하였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대인배의 면모라 하며 함께 웃는다. 최익현은 해배되어 돌아갈 때까지 자주 박우현을 찾았다. 함께 대흑산도에 다니러 가자고 권하기도 하고, 아들을 보내 인사를 묻고 자주 여러 가지 선물

을 보내왔다. 그리고 어느 날은 운을 지어 보내며 시를 청했다. 이런 일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유배지에서 박우현이 교유한 유배객들은 최익현 이외에도 많다. 그런데 유독 최익현과의 교유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는 이유는 그가 최익현과의 교유에 유배와 관련하여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어서일 것이고 또 그들 간에 성립된 일종의 화해를 자세히 서술해 놓을 필요를 느껴서일 수 있다.

이처럼 <자산록>은 서술 분량에 있어서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서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상세히 기록해야 할 일에 대한 것이나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순간에 대한 서술은 풍부히 하고 있는데, 서술상의 이러한 흐름은 대부분 유배의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요컨대, 기록의 빈도와 서술의 분량이 얼핏 보아 온전히 무작위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반드시 기록이 필요한 순간에는 매일 기록을 남기거나 풍부한 서술을 함으로써 그의 유배 생활을 매우 자연스러운 호흡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산록>의 기록들이 빈도와 분량 면에서 보이는 이러한 서술상의 특징들은 유배의 정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유배라는 특수한 경험이 이러한 서술상 특징을 견인한 것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2) 서두와 결미를 갖춘 구조의 완결성

일반적으로 일기는 시작과 마무리가 명확하지 않다. 일기의 어느 부분을 펴서 첫날의 일기나 마지막 날의 일기와 비교해보았을 때 뚜렷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일기의 마지막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정작 일기를 쓰는 저자 자신조차 언제 일기가 끝이 날지 알지 못하고 언제까지 일기를 써야겠다는 명확한 계획 없이 쓰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록>은 여타의 일기들과 달리 서두와 결미의 기록이 특별하

다. 서두와 결미가 각각 글을 여닫는 역할을 온전히 함으로써 한편의 완결된 구조를 가진 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자산록>의 서두 부분을 살펴보자. 1869년부터 1873년 12월에 유배형이 확정되어 유배길에 나서기 직전까지가 서두에 해당한다. 이 일기는 1869년부터 1884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박우현의 유배는 1873년 12월부터 1884년 12월 25일 집에 돌아오기까지의 약 12년에 해당한다. 박우현의 유배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 일기의 중심이자 본론이라고 한다면 1873년 12월 이전의 기록들은 서두라고 할 수 있다.

서두의 내용은, 문과에 급제한 이후의 출사 이력(1869년~1872년), 척익현의 상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정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조정의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1873년 10월), 상소문을 작성하고 의금부에 간혀 국문을 당하는 과정과 유배형이 확정된 경위(~1874년 12월)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서두는 박우현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배의 원인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는 마치 보통의 서사물들이 서두에서 인물이나 배경 등을 소개하는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기는 박우현이 완전히 해배되어 고향집으로 돌아온 날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이 글의 결미 부분은 1884년 12월 25일에 유배 및 해배 노정을 요약하면서 본격적인 기록을 마무리하고 난 뒤 부기된 서술에 해당한다. 이 부분에 자신이 이 일기를 기록한 이유를 서술하고 있어 일기의 훌륭한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다. 12년에 걸친 유배의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록의 이유, 의미 등을 스스로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정성을 들여 말을 다듬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옛사람들이 출사하는 것은 구차하게 녹을 바라고 은총을 온전히 하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다. 국가가 당면한 많은 일에 반드시 일에 따라 진언하여 군왕이 과오가 없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다.

지금 내가 보잘것없는 재주에다 하찮은 관직에 있으면서 어찌 감히 옛사람들의 이런 것을 자처하리오마는, 마침 말을 할 때를 만나서 어리석은 마음의 만에 하나를 감히 말하였다. 그리하여 열 차례 국문을 받고 12년 고도안치되어 목숨을 보존하리라는 기대가 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군왕의 호생(好生)의 은택을 입어 간신히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다.

이에 그 전말을 기록하여 자손에게 남겨서 알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늙은이의 뜻이 있다. 내가 벌을 받은 때부터 풀려날 때까지 귀양길을 오가고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였다. 이 또한 잊지 못할 것이다. 금파옹이 쓴다.¹⁰⁾

요약하자면 ‘어리석은 마음을 함부로 말하여 죄를 지었으나 은총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군왕이 허물이 없는 곳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금의 호생지덕(好生之德)으로 살아남게 되었으니 그 전말을 기록하고 유배살이에 도움받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자 한다.’는 것이 〈자산록〉 기록의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유배’라는 사건은 분명한 시작이 있고 또 다수는 극적인 마무리(해배 혹은 사사(賜死))가 있기 때문에 유배일기는 여타의 일기들에 비해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배일기라고 해서 모두 〈자산록〉처럼 서두와 결미가 충실한 것은 아니다.

다른 유배일기들의 서두 및 마무리에 대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윤창후의 〈수주적록〉과 김윤식의 〈속음청사〉에는 특별한 서두나 마무리가 없다. 이세보의 〈신도일록〉, 김령의 〈간정일록〉, 송상기의 〈남천록〉,

10) 古之人出而仕者 非苟祿而 全恩寵而已. 當國家多事 則必隨事盡言 致君於無過之地. 今余以菲才忝小官 詎敢以古人之所期自處也 適會可言之時 冒陳愚衷之萬一. 而十度鞠問 十二年孤島安置 無望生全. 然終荷聖明好生之澤 得保一縷. 茲記顛末以遺子孫俾知 乃翁之志有在也. 余自觸罪至蒙宥 其間驅馳居停專資於人 亦有不忘者云. 錦坡翁識 * 번역문은 박우현 저, 김형만 역주, 『錦坡遺集 茲山錄』, 신안문화사, 2016을 참고하였다. 이후의 인용문도 마찬가지다.

김려의 <감담일기>는 특별한 마무리 발언이 없으나 서두에 유배 원인과 자신의 유배 이전 이력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 서술이 풍부하지는 않지만, 인상적인 기록으로 일기를 마무리한 작품으로 <남정일기>, <적소일기>, <태화당북정록>을 들 수 있다. 박조수의 <남정일기>는 일기 끝에 자신이 이 일기를 기록한 이유가 할아버지의 유배를 배행했던 일을 궁금해하는 아내를 위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김약행은 <적소일기> 말미에 ‘팔년 적객의 만단 비감한 회포를 이기지 못하여 금갑적거록을 지어 돌아가는 날에 집안사람들에게 보이고 내 고행 겪은 말을 이야기 삼아 이르려 하니 삼장의 팔십일난이나 다르지 아니하되 마침내 필경 할 것이 없어 헛되이 고행만 적을 따름이로다.’라는 쓸쓸한 소회를 남겼다. 일기가 완성된 뒤 오래지 않아 안타깝게도 김약행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이광희는 <태화당북정록>에서 記를 통해 ‘계림사화로 죄를 받아 복관에 3년간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때 도중에 겪었던 일들을 기록하여 자손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그 기록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일기의 마지막에는 ‘집을 2천 리나 떠나 있었고 27개월이나 객지 생활을 하였는데 그동안에 고생스러웠던 것은 조주에 귀양 갔던 한창려와 유주로 귀양 갔던 유자후보다 더 하였으나 마침내 죽지 않고 돌아왔으니 어찌 하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라며 집에 돌아온 기쁜 감회를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였다.¹¹⁾

이처럼 서두 부분에 유배 원인이나 유배 노정을 아예 생략하여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서술을 하지 않고 해배되어 집에 도착하는 것으

11) 참고한 자료는 언급된 작품의 순서대로 다음과 같다. 윤창후, 김남기 역, 『譯註 愁州謫錄』, 남원윤씨참판송오자등과과종중, 2013; 김윤식, 최성환 외 역, 『김윤식의 지도 유배일기』, 신안문화원, 2010; 진동혁, 『李世輔 時調研究』, 집문당, 1983; 김령, 오덕훈 외 역, 『해기웅 김령의 입자도 유배생활 <艱貞日錄>, <歷代千字文>』, 민속원, 2016; 송상기, 한국고전번역원·충남대한자문화연구소 역, 『玉吾齋集』, 문진, 2013; 김려,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박조수, <남정일기>(표제: 남행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김희동, 『선화자 김약행 선생의 꿈과 생애』, 목민, 2003; 이광희, 장재현 역, 『(譯註) 太和堂北征錄』, 학성이씨월진과여당문화회, 2007.

로 바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일기에 대한 의미부여나 기록행위를 마무리한다는 표현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간략하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서두와 마무리 서술을 모두 갖춘 작품은 흔치 않다. 그런데 <자산록>은 서두에서는 ‘인물-박우현’과 ‘사건-유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정보들이 나오고, 결미에는 이 기록물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서술되어 글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한 편의 완결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자산록>은 서두 부분이 전체 일기 분량의 30%에 가까울 정도인데, 분량 면에서는 다소 지나친 감은 있지만,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전반부의 내용이 없었다면 그가 왜 유배되었는지, 그의 유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다. 결미도 마찬가지다. 만약 ‘십이 년, 이천여 리¹²⁾’라는 짧은 문장으로 유배를 요약한 것이 이 일기의 마지막이었다면 <자산록>이 장장 12년이라는 긴 유배생활에 대한 기록물이라는 사실이 무색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벼슬하는 이의 마음가짐, 자신의 유배에 대한 공적이고 거시적인 이해의 자세, 후손과 도움 준 이들에 대한 세심하고 정중한 서술들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기가 유배라는 형벌을 겪어낸 조선 관리의 심적 상태를 매우 잘 담아내고 있는 하나의 완성도 있는 구조물로서의 기록이 될 수 있었다.

요컨대, <자산록>은 여타의 일기, 더 나아가 같은 유형에 속하는 다른 유배일기들과 비교해보아도 서두와 결미의 역할을 하는 서술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훌륭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유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서두와 기록행위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결미가 액자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매우 안정감 있는 텍스트를 완성한

12) (1884년 12월) 25일. 새벽에 출발하여 저녁 어둑어둑한 틈을 타 집에 도착하였다. 진후(2번의 유배)를 합하여 십이 년, 수·육로를 합하여 이천여 리 길이다.(二十五日. 曉發乘昏抵家. 前後合十二年. 水陸路合二千餘里.)

것이다. 이는 박우현이 단순히 경험을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일기를 한편의 온전한 텍스트적 구조물로 완성하고자 한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 묘사와 인용의 적절한 활용

① 묘사를 통한 정서의 극적 표현

어떤 감정이나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보여주기의 방법은 효과가 크다. 감정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감정을 촉발하는 광경을 묘사함으로써 그 정서를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밤 삼경에 홀로 앉아서 고사를 읽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눈이 휘둥그레서 보니 당숙 수일과 조카 서구였다. 계속 서로 보기만 하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¹³⁾

이즈음 박우현은 이질에 걸려 고생 중이었다. 보수주인과 글을 배우는 아이들,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보살펴주었다. 그러나 해를 넘긴 유배 생활로 의지가 많이 꺾인 그는 죽음을 예감하고는 고향 집에 자신을 장례 치를 준비를 해 내려오라는 연락을 하였다. 이 연락을 받고 조카 서구가 내려온 것이다.

위의 장면에서 실로 오랜만에, 그것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카의 얼굴을 마주하는 박우현의 놀란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진다. 너무나 반갑고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를 표현한 것일 테지만, 그 어떤 수사의 힘을 빈 문장보다 마음을 움직인다.

13) 夜三更 獨坐閱古史 有叩門者. 瞭然視之 則乃堂叔秀一與姪子叙九也. 脈脈相看 不得措一辭.(1874년 2월 7일)

서구를 돌려보냈다. ... 아득히 바라보니 돌아가는 배가 바람처럼 점점 멀어 지더니 (수평선에는) 다만 하늘과 구름과 물만 있을 뿐이었다.¹⁴⁾

조카가 돌아갈 때는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는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마치 한 폭의 쓸쓸한 그림을 보는 듯 헤어짐의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조카를 신고 떠난 배가 흔적조차 없이 멀어지고 나니 하늘, 구름, 물만 있는 텅 빈 공간이 망망하다. 이는 눈 앞에 펼쳐진 풍경이자 박우현 내면의 풍경이기도 할 것이다.

처음 보는 얼굴의 두 소년이 와서 문밖에서 절을 하고 울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나 역시 멍하니 놀라서 쳐다보니 그들이 눈물을 거두고 고하기를 조카 친구와 아들 호구라 하였다. 내가 비로소 그들을 자세히 보니 즉 친구는 비록 모습이 변하고 골격이 잡혔으나 희미하게 어렸을 적 모습이 드러나는데, 호구는 십년 전에 포대기에 싸인 아기였으므로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¹⁵⁾

유배로 인해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다 보니 조카는 물론이고 심지어 아들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조카와 아들은 ‘처음 보는 두 소년’처럼 낯설다. 그런데 그 낯선 소년들이 울면서 절을 하니 박우현은 순간 현실감을 잊고 만다. 자세히 보니 조카는 어렸을 때 보았던 얼굴이 나타나는데 아들은 너무 어려 생이별한 탓에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아마 아들 호구는 너무 어려 흑산도까지 내려오기 어려워서 그간 걸음을 못 했을 것이다. 이제 어느덧 어엿한 소년으로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단번에

14) 送還叙 ... 遙望歸帆 飄然漸遠 只天與雲水而已。(1874년 2월 22일)

15) 有生面目二少年 來拜門外 泣不能語. 余亦恍惚方瞻視 而渠輩收淚告姪振九子鎬九也. 余始乃仔細看之 則振也雖幻形骨立 略驗舊樣 鎬也是十年前襁孩 全然不知也。(1882년 4월 25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외롭게 덩그러니 혼자 있던 박우현의 방문 앞에 기적처럼 조카와 아들이 서 있다. 세월은 무심하게 훌쩍 흘러 아이들을 어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장면은 별다른 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낭만적인 느낌마저 든다.

이처럼 조카와 아들이 유배지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직설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대신 박우현은 아이들과의 만남의 순간을 한 편의 그림처럼 묘사하는 말로 일기를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일기의 문장들은 문학적 긴장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처럼 인상적인 묘사로 시작하는 장면은 상당한 문학적 쾌감을 느끼게 한다. 외로운 적소의 방문 앞에 어느 날 찾아와 선 아들과 조카, 그리고 그들을 싣고 멀어지는 배와 그 배조차 시야에서 사라진 장면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하여 기쁨과 아쉬움이 더욱 인상적으로 기록되었다. 박우현은 가족과의 재회의 기쁨과 이별의 아쉬움을 적절한 묘사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다.

<자산록>은 비록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묘사의 방법이 압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종 마치 영화의 대본처럼 어떤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보여주는 방법, 묘사의 묘미를 사용한 문장을 보여준다. 그 문장들은 담백하면서도 솔직해서 오히려 더 감동적인데, 주로 가족과의 갑작스러운 재회의 기쁨이나 헤어짐의 아쉬움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발휘 한다.

② 국문(鞫問)의 생생한 인용을 통한 정당성 확보

<자산록>은 국문의 과정에서 오고 간 말들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1873년 12월 13일 의금부에 갇힌 후 위관 박규수 등이 국청을 열어 문초한 내용을 문답형식을 그대로 살려 기록하였다.

위관이 처음에 묻기를, 임금에게 말씀을 올리는 일에 어찌 우려스러운 것이

없겠는가. 그러나 네가 기필코 '효제'라는 말을 글머리에 게시하여 올렸으니 무슨 까닭인가? 이는 필시 지적해서 닦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말한 것이니 날날이 바른대로 말하라. 팔십 나졸들이 일시에 북을 두드리며 소리를 치고 흰 몽둥이 붉은 지팡이가 구름처럼 날아서 부딪혔다. 그러나 백번을 돌이켜 보아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이에 조용히 말하였다. 요순의 도로써 군왕에게 진언하는 것은 실로 신하 된 자의 당연한 마음이며,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중요한 도리도 효제 한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하된 자가 군왕에게 올리는 말에 무엇이 이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이는 삼가고 경계할 것을 아뢰고 고한 말에 불과한데 어찌하여 지적한다고 의심하여 죄와 허물을 만들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에 빠트리기를 바라니 실로 그 처분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답할 것이 없습니다.¹⁶⁾

위의 장면은 첫 국문의 모습이다. 위관은 효제(孝悌)를 상소의 첫머리에 쓴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박우현은 효제를 거론한 것은 다른 저의가 없으며 오직 신하 된 자로서 군왕에게 마땅히 올려야 할 말을 한 것이라는 뜻으로 대답하였다.

이처럼 위관이 무엇을 물었는지, 그 물음에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국문 현장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국문의 절차가 어떠했는지, 공초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등도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그런 기록이 21번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어지는 국문에서 위관들은 효상(爻像)이 실화(失和)하였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위태롭고 두려운 때라고 한 것은 나라가 곧 망할 것 같다는 것인가, 재난이 까닭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자의(疵議)라는 것이 무슨 일을 두고 한 말인가, 누구와 의논하였는가, 부추긴 사람이 누구인가 등을 물었고 박우현은 이에 대해 답하

16) 委官初問曰 陳諫之事 何患無之 而汝必以孝悌一說 首揭之抑 何故也. 此必有指斥處 而言之一直招也. 八十羅卒一時鼓喊 白棒朱杖雲飛兩擊然. 百爾內省無所縮焉, 余乃從容供辭曰, 欲以堯舜之道 陳於吾君 實人臣之常情而, 修齊治平要道 不越乎孝悌一事, 則爲人臣告君之辭 孰大於是哉. 此不過陳勉告戒之辭 而如何處疑於指斥 曲成罪科期陷罔 測實不知其處分也. 更無所答.(1873년 12월 14일)

고 있다.

국문에서 오간 대화들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유배의 이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우현의 결백을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위관들은 박우현의 상소 내용을 조목조목 문제 삼으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사실대로 말하라, 날날이 자세하게 말하라.'며 다그친다. 이에 대해 박우현 또한 조목조목 해명하고 반박하였는데, 그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박우현은 이처럼 국문 현장에서 오간 대화를 거의 그대로 옮겨 기록하고 당시의 정황 등을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상소를 둘러싸고 발생한 문제들을 해명할 수 있는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위관들의 물음은 박우현의 상소를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에서 집요하게 이어졌으나 박우현은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았음이 사실적이고 생생한 인용을 통해 증명된 것이다.

함께 고려할 것은 박우현을 대하는 금리들의 호의적인 대응에 대한 기록이 많다는 점이다. 1873년 12월 14일에 시작된 국문은 19일에 유배형이 내려질 때까지 이어졌는데, 김명학이라는 금리가 유배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주었다. 그는 사형에서 한 등급 감하여 흑산도에 정배하라는 명이 내려왔다고 급히 소식을 전해 주며 '다행'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는 박우현이 처음 잡혀 왔을 때도 빈 가마니 수십 장을 가져와 가려주고 덮어주어 감옥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음식을 잘 먹는지 살피는 한편, 국문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답을 잘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김명학뿐만 아니라 다른 금리들도 형장이 계속되자 박우현을 측은히 여기고 위관들에게 형장이 가혹하다고 고하기도 하였다. 박우현은 형장이 그친 것도 이런 금리들과 나장들의 덕분이라고 하며 이홍성, 이재근, 최수영 등 나장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함으로써 그 고마움을 표했다.¹⁷⁾

이러한 기록들은 한편으로는 박우현에게 씌워진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실상 그는 신하로서 해야 마땅할 일은 했을 뿐, 군왕에게 불충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뒷받침할 나름의 객관적인 근거를 국문 과정에서 오간 문답을 모두 생생히 인용함으로써 확보하고 있다.

4. 결론

박우현의 <자산록>의 서술상 특징은 ‘기록의 빈도와 분량이 유배의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서두와 결미를 갖춘 완결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묘사와 인용이 적절히 활용’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가령, 유배의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해야 하므로 빈도수가 잦고 서술 분량이 많다. 유배노정에 대한 기록은 서술 분량은 많지 않으나 객관적 기록의 필요성 때문에 빈도수가 높다. 그리고 가족 상봉의 상황을 서술한 분량이 많은 것도 유배일기로서는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두와 결미 부분이 기능적으로 적절한 역할을 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는 텍스트의 모양새를 갖추었고, 적절한 묘사를 통해 정서를 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인용을 통해 정당성을 뒷받침할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록>의 이와 같은 서술상 특징은 유배일기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다시 살필 수 있다. 유배일기로서의 보편성이란 ‘유배’라는 한편으로는 독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형성을 띤다고 할 수 있는 경험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된 서술상 특징이라 할 수 있고, 개별성이란 일기란 그것을 기록한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엄연한 문학적

17) 1873년 12월 19일

기록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록의 빈도 및 분량과 유배 정황의 상관성’이 전자인 보편성에 해당하고, ‘서두와 결미’, ‘묘사와 인용의 활용’이 후자인 개별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다른 유배일기들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유배일기의 장르적, 문체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작은 단서가 될 것이다.

유배일기는 조선 시대 양반 사대부들의 피해의식 과잉으로 읽힐 여지가 많다. 물론 일부 일기들은 그런 면이 있다. 그러나 박우현처럼 12년 동안 유배지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 짐작하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유배일기에 대한 성급한 평가는 자제되어야 한다. 유배 일기들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십수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데 심지어 몇몇 일기는 해배에 대한 기록마저 남기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로 끝나기도 한다.

아마도 박우현의 절실함은 당연히 <자산록>에 다 담기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그것을 읽는 우리들의 눈은 유배일기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마저도 완전히 독해해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록>의 서술상 특징을 유배일기로서 가지는 태생적 측면과 연결 짓거나 박우현 개인의 문필적 개성과 연결 지어 살펴보려는 노력은 다만 그의 절실함을 제대로 독해해내기 위한 읽기의 한 방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려, 오희복 역, 『글짓기 조심하소』, 보리, 2006, 1~902쪽.
- 김령, 오덕훈 외 역, 『해기웅 김령의 임자도 유배생활 <艱貞日錄>, <歷代千字文>』, 민속원, 2016, 1~504쪽.
- 김윤식, 최성환 외 역, 『김윤식의 지도유배일기』, 신안문화원, 2010, 1~553쪽.
- 박우현, 김형만 역주, 『錦坡遺集 茲山錄』, 신안문화사, 2016, 1~222쪽.
- 박조수, <남정일기>(표제:남행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 송상기, 한국고전번역원·충남대 한자문화연구소 역, 『玉吾齋集(4)』, 문진, 2013, 1~456쪽.
-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嶺南文集解題』, 영남대 출판부, 1988, 1~1050쪽.
- 윤창후, 김남기 역, 『譯註 愁州謫錄』, 남원윤씨참판송오자당과파중증, 2013, 1~333쪽.
- 이광희, 장재한 역, 『(譯註) 太和堂北征錄』, 학성이씨월진파여당문화, 2007, 1~324쪽.
-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2022.04.11)

2. 논저

- 김정은, 「조선시대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영남학』 7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7~36쪽.
- 김희동, 『선화자 김약행 선생의 꿈과 생애』, 목민, 2003, 1~323쪽.
- 박을수, 『晦窩 尹陽來研究』, 아세아문화사, 2003, 1~648쪽.
- 심경호, 「조선시대 개인일기의 종류와 기록자 계층」, 『동아한학연구』 14,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20, 391~456쪽.
- 정우봉, 「조선시대 국문 일기문학의 시간의식과 회상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95~227쪽.
- 조동길, 『可畦 趙翊 先生의 公山日記 연구』, 국학자료원, 2000, 1~342쪽.
- 조수미, 『조선후기 한글 유배일기 연구』, 경진, 2016, 1~303쪽.
- 진동혁, 『李世輔 時調研究』, 집문당, 1983, 1~315쪽.
- 최성환,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대흑산도」, 『한국민족문화』 36, 부산대 민족문화연구소, 2010, 139~177쪽.
- 최성환, 「茲山錄을 통해 본 19세기 후반 박우현의 우이도 유배생활과 섬 사회

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20(1), 역사문화학회, 2017, 87~131쪽.

최은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배일기 자료의 현황과 활용 가치」, 『안동학』 19, 한국국학진흥원, 2020, 339~364쪽.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Park Woo-hyeon's Exile Diary *Jasanrok* (茲山錄)

Cho, Su-mi

Jasanrok is the exile diary of Park Woo-hyeon (朴遇賢, 1829-1907), a scholar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who was exiled to Heuksando for 12 years, as reported in *Geumpa Yujip*. This study focuses on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Jasanrok* and explores the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of *Jasanrok* as a diary of an exile.

One of the descriptive features of Park Woo-hyeon's *Jasanrok* is that the frequency and number of records are closely related to the circumstances and contents of exile. For example, as the description of the reason for exile must be recorded in detail, numerous accounts have been included in this regard. Although there are not many narratives on the exile course, the frequency of their occurrence is high because of the need for objective records. On the other hand, as the opening and ending parts play a functionally appropriate role, the text has a structurally stable appearance, emotions are expressed dramatically through appropriate descriptions, and the objectivity and realism of the information can be secured through citations.

Such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Jasanrok* can be re-examined by dividing it into the aspects of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Universality as an exile diary is a narrative characteristic that is inevitably acquired because it records an experience that is both unique and general: additionally, being a diary, individuality is retained. It may be stated that it is a characteristic that appears because it is a strictly literary document that reveals the personality of the author who wrote it. Its universality corresponds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requency and quantity of records and the circumstances of exile, and the use of the

introduction and conclusion, and of description and citation corresponds to individuality.

Key Words

Park Woo-hyeon, Exile diary, *Jasanrok*, Narrative Features

논문투고일 : 2022.04.12.

심사완료일 : 2022.04.29.

게재확정일 : 2022.05.02.